

아파트숲에 둘러싸인 무등산국립공원

대규모 단지 잇단 사업 승인...광주시·구청 규제대책 없어 소태동 건립 재신청 움직임에 인근 주민 "경관 훼손" 반대

무등산 국립공원이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자연경관 등 지적 이점을 이용해 무등산 주변에 무분별하게 아파트 건립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무등산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환경파괴는 물론 시민들의 조망권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지자체와 자치구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무등산 국립공원 주변 아파트 건립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광주시 동구 소태동 H아파트 신축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신축반대위)에 따르면 무등산 경관 및 자연경관 훼손,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H아파트 신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최근 광주시와 동구청에 전달했다.

H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인 A건설사는

“지난 7월께 소태동 지원정수장 인근에 7개 동(최고 15층), 28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사업승인 신청을 냈다. 동구는 지난달 “법적 토지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업을 불허한 상황이다. 현재 A건설사는 ‘무등산 별장 아파트’라는 문구로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사업승인 신청을 다시 내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축반대위는 “신축 아파트 부지는 무등산 동쪽 한 지류로 무등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즐겨 애용하는 등산로의 한 코스이며, 광주시가 ‘빛고을 산들길’로 지정·관리한 지역”이라며 “이곳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은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과 무형의 가치들이 만들어낸 무등산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조망권이 심각하게 피

해를 받는 것은 물론 현재 산의 중심을 제2순환도로가 관통하고 있어, 신축 이후 산사태 등 사고 위험도 예상된다”며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단체들의 승인을 얻지 않고 아파트 신축 허가를 내줄 경우 환경단체, 광주시민과 연대해 인허가취소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등산 주변 아파트 건립은 비단 소태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시와 동구·북구에 따르면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2013년 3월4일)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된 지난 2012년 이후 사업승인이 난 무등산 주변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북구 2곳, 동구 1곳 등 모두 3곳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말에는 B건설사가 동구 산수동 58·7번지 일원 335세대 아파트를, 지난 7월에는 C건설사가 북구 각화동 산 30·5번지 일원 894세대 아파트의 사업 승인을 각각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D건설사가 북구 각화동 382·1번지 일원에 946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고 사업 승인을 받았다.

3곳 모두 무등산과 무등산 지류에 인접한 지역이다. 특히 D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는 최고 35층이 넘어서고, C건설사가 추진 중인 지역은 송전탑 지중화 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건설사가 무등산 주변에 아파트 건립을 눈독들이는 이유는 최근 수요자들이 주변 자연경관이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자치구는 이를 규제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광주도시경관 기본구상에서 지정한 경관중점관리지역 27곳에 포함되지 않으면 경관심의조차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또 무등산 주변에는 경관중점관리지역보다 건축고도, 조경의무화 면적 등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경관지구가 한 곳도 없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광역시별 녹지비율에서 전국 6곳의 광역시 중 5위를 기록했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추억 남기고 막내린 총장축제 '제12회 추억의 총장축제' 마지막날인 1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무대에서 이화예술단이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다. '추억&어울림'을 주제로 지난 7일 개막한 추억의 총장축제는 '아시아-팝 페스티벌'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들로 꾸며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확기 농기계 사고 속출 '주의'

야간에 벼를 수확하다 콤바인이 추락해 운전자가 숨지고, 트랙터-경운기가 전복돼 부상을 당하는 등 수확기 농기계 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영광경찰은 지난 9일 오후 7시20분께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의 한 계단식 논에서 심모(68)씨가 몰던 콤바인이 2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심씨가 콤바인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콤바인 운전자 심씨가 해가 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가장자리에 서 후진을 하다가 추락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 같은 날 장흥군 대덕읍 언지리의 한 논에서 트랙터가 전복돼 운전자 김모(56)씨가 부상을 당했다. 다음날인 10일 오후 2시

영광서 콤바인 추락 60대 숨져 여수·장흥서도 전복 사고 부상

계에는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의 한 밭에서 박모(75)씨가 몰던 경운기가 넘어져 박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처럼 농기계 사고는 수확기인 9~10월에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586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대부분은 모내기철인 5~6월과 수확기인 9~10월에 집중됐다.

농기계 종류별로는 경운기가 전체 사고의 6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트랙터, 예초기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노인이 전체 사고의 65%를 차지했다. 대부분 고령으로 인한 운전 미숙과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음주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야간에는 반드시 시야를 확보한 뒤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인권 민원 매년 5000여건 처리

광주인권사무소 개소 10년 8만여명 교육 등 인권신장 권한·인력 부족 아쉬움도

다수인 보호시설의 경우 불법·강제수용, 가혹행위 등이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지난 10년간 정신보건시설, 노숙인 시설, 다문화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에서 총 8만510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읍·면·동 등을 돌리면서 지역 인권 신장에 기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인권사무소에 부여된 권한과 인력 부족으로 독자적인 조사·판단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10년간 총 5만405건의 진정, 상담, 민원 사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이 중 직접 조사에 나선 4751건 가운데 618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권고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접수·처리된 사건의 종류는 진정 5500건(10.9%), 상담 1만8258건(36.2%), 안내 및 민원 2만6647건(52.9%)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전체에서 접수된 62만3385건의 8.1%를 차지했다. 처리한 진정사건을 시설별로 분류하면, 다수인 보호시설 2082건(42.1%), 구급시설 1814건(36.6%) 순이다. 기관별로는 경찰 528건(10.7%), 지자체 132건(2.7%), 검찰 96건(1.9%) 순이다.

접수된 주요 진정유형은 구급시설의 경우 인격권 침해, 의료조치 미흡, 부당 징벌 및 보호장비 사용 등이고,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인권조례 제정을 주도한 것도 광주인권사무소의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2008년부터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 2009년 인권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광주인권사무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산하조직으로서 권한과 인력이 미미해 독자적인 판단과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삼일대표인 김용목 대표는 “광주인권사무소 10년은 광주에서 인권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의 제도화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컸지만, 인력과 권한 부족으로 독자적인 업무 수행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12일 5·18 민주화운동기록관(금남로)에서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날 말까지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김형호기자 khh@

인면수심 마을 어른들

“4명이 지적장애 의심 여성 11년간 성폭행”

전남의 한 마을에서 남성 4명이 수년 간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흥경찰은 A씨 등 4명이 같은 마을 내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B(여·25)씨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B씨가 중학생이던 지난 2004년부터 11년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남성은 40~70대로 B씨가 지난 2010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몇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B씨가 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엇갈리는 면이 있지만, 피해 여성이 진술능력을 갖춘 만큼 추가 조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술값 시비 끝 업주 때린 철부지 사회복무요원

○...술값 계산 시비로 술집 주인을 때린 ‘철부지’ 20대 사회복무요원(대체 복무요원)이 경찰서에서 일할 때 술집 주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하남산단의 한 기업체에서 대체 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최모(21)씨는 이날 새벽 1시50분께 광산구 수완동 모 술집에서 주인 최모(여·28)씨의 목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업주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술집에 주머니가 가버렸다. 술을 많이 마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처해달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술집 주인 등 관련자 추가 조사를 거쳐 최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할 방침.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7층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7층 건물 (사우나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월수익 **950만** (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1,800만**
(보 1억5천, 용 6억)

매가 14억 5천

수익성 상가 <상무지구 오피스텔>

-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2천,월7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보5백,월 45만) 임대완료 → 매가 8천 5백만
- 북구 중흥동 원통 상가 (전대 정문2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3층 상가 매매
(수완동, 4층중 3층)

85평

신한은행 뒷편
(상가 밀집지역)
모아엘가 앞 (6천세대 밀집)

보 3천, 월수익 **180만**
(용 2억5천만) 실투자 → **1억**

매가 3억 7천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 6층 (45평) (보 1천,월60만) 임대완료 (용 5천) → 매가 1억 1천만
- 나주 삼영동 (영산포) 2층상가 매매 월수익 200만(용 1억 2천) → 매가 2억 9천만
- 광산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 5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매매(오피스텔)

-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한국은행 앞 (용5천(보1천, 월70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상무나이트 옆 (용4천(보5백, 월42만) → 매가 7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용5천(보1천, 월50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롯데마트앞,상무나이트 옆 (용2천(보3백, 월33만) → 매가 5천만
- 수완지구 3층상가(85평) 신한은행뒷편,모아A.P.T 6,000세대 앞 (용 2억5천(보3천, 월수익 180만) → 매가 3억8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45평) 울수리,전망좋은,임대완료 (용5천(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운전역1번출구 3분 (용2천(보3백, 월32만) → 매가 3억8천만
- 광산구 첨단지구 월계동 상가(40평) (보8백, 월80만(용4천) → 매가 1억5천만
- 광양 광영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보2백, 월25만) → 매가 3천8백만

법률경매

수익성상가(근린상가/구분상가)

- 서구 치평동 (토15평,건90평)감평가 6억3천5백~최저가 4억4천
- 동구 금동 (토19평,건149평)감평가 5억1천~최저가 9천3백
- 동구 금동 (토18평,건 134평)감평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
- 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 4.2평,건18.6평)감평가 2억9백~최저가9천3백
- 서구 치평동 (토30평,건56평)감평가 3억93천~최저가 1억8천(지하)
- 광산수원(토122평,건78평)감평가16억2천~최저가19억
- 북구신용동(토32평,건48평)감평가4억2백~최저가1억8천
- 서구 치평동(토3평,건13평) 감평가 2억3천3백~ 최저가 1억3천만

수익성상가(근린주택,오피스텔)

- 서구 금호동 (토 63평,건111평) 감평가 3억3천~ 최저가 3억3천
- 동구학동 (토138평,건545평)감평가 23억~16억

수익성상가(근린주택,통건물)

- 북구 누운동(토305평,건238평)감평가 11억7천~8억2천
- 광산구 남산동(토258평,건150평)감평가4억8천~최저가 2억6천8백
- 북구 중흥동 (120평,530평)감평가13억7천~최저가 6억1천5백
- 동구 수기동 (토130평,건320평)감평가 1억7천~최저가 6억
- 서구 농성동 (토 86평,건263평)감평가 5억7천~최저가 4억
- 북구 각화동(토337평,건509평)감평가 22억3천~최저가 15억6천
- 광산구 쌍림동 (정례식장) (토 516평,건920평) 감평가 36억7천~ 최저가 29억
- 서구 광천동 (토지 76평,건86평) 감평가 3억2천~3억2천

모텔/주유소

- 광산구 쌍림동(숙박시설)토357평,건680평)감평가27억~최저가15억
- 광산구 쌍림동(숙박시설) (토154평,건419평)감평가 15억~최저가 8억4천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010-7384-7800 /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